

일본과 올림픽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 개최국



1964년 도쿄 올림픽 개막식
93개국에서 온 5,152명의 선수들이 20가지 경기에서 경쟁하였다. (사진제공 : Photo Kishimoto)

서론

일본은 191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5회 올림픽이래 적극적으로 올림픽에 참여해왔다. 1940년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선정되었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따라서 1964년 하계 올림픽(도쿄)과 1964년 동계 올림픽(삿포로)은 각각 아시아에서 열린 최초의 하계, 동계 올림픽이다. 1998년 나고야 동계 올림픽은 일본이 세 번째로 개최한 올림픽 경기다. 그리고 2020년 하계 올림픽이 도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이 올림픽 호스트 국가가 되는 것은 이것으로 하계, 동계 합쳐 4번째이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2020년 하계 올림픽의 개최지로서 도쿄를 선택하였다. 교통망의 편리성과 철저한 치안 유지 등이 높게 평가를 받은 결과다. 역사상 2번째가 되는 '도쿄 올림픽'은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그리고 패럴림픽은 2020년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개최될 예정. 야구/소프트볼, 가라데,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및 서핑을 올림픽 종목에 추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역사

유도 체육인인 가노 지고로의 노력 하에 일본 올림픽 위원회(JOC)가 1911년에 설립되었다. 이듬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5회 올림픽이래 두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일본 팀원으로 참가한 최초의 두 선수는 단거리 달리기 선수인 미시마 야히코와 장거리달리기 선수인 가나쿠리 시시다.

다음 경기는 1916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앤트워



제15회 패럴림픽 폐막식
(사진 제공: 키시모토)

프에서 열린 1920년 경기까지 일본은 15명의 팀을 구성했으며 최초의 메달 : 단식, 복식 테니스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1928년 암스테르담의 경기에서, 일본은 육상과 수영에서 처음으로 두 개의 금메달을 따내었다. 히토미 키누 선수는 일본 올림픽 대표단에 참여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800미터 경기에서 은메달을 땀으며 이러한 성공은 더 많은 여성이 경쟁적인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장려했다.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참가한 131명의 일본 대표단에는 16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 운동선수들은 육상과 수영, 승마, 하키에서 모두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4개를 땀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본은 17명의 여성을 포함해 249명의 선수로 이루어진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구성했다. 이 경기들은 닛폰 호소 코카이 (NHK: Japan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다원 중계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열광적인 팬들은 선수들의 진행 상황을 듣기 위해 (일본과 유럽의 시차 때문에) 밤늦게까지 라디오 채널을 돌렸다. 베를린에서는 수영선수 마에하타 히데키가 200미터 배영에서 우승함으로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첫 일본 여성이 되었다.

1936년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 는 도쿄와 삿포로를 각각 1940년에 열릴 예정인 하계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도쿄 올림픽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취소되었고 같은 이유로 1944년 런던 올림픽도 취소되었다가 결국 1948년에 다시 열렸다.

일본은 1948년 런던 올림픽 참가국으로 초대받지 못하였지만 1951년에 국제 올림픽 위원회로부터 재승인 받았고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 72명의 선수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1956년 멜번 올림픽에는 여성 16명을 포함한 101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메달 4개를 비롯하여 총 19개의 메달을 따내었다.

1960년에 일본은 147명의 남자선수와 20명의 여자선수로 구성된 대규모 선수단을 로마 올림픽에 파견했다. 폐막식 때 83개국의 참가국에서 온 선수들은 4년 후에 도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도쿄 올림픽과 그 이후

1952년에 전후 군 점령 기간이 끝나자 일본은 1960년에 도쿄에서 제17회 올림픽피아드를 개최하게 해줄 것을 IOC에게 요청하였다. 이 개최지 입찰은 로마가 받았지만 일본은 낙심하지 않았다. 1955년 10월에 도쿄 시의회는 1962년에 열리는 제18회 올림픽피아드 개최지로 입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일본 대표단은 제56회 IOC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의 뮌헨을 방문하였다. 올림픽 유치권에 대한 희망을 굳게 다지고 일본은 디트로이트와 비엔나와의 경쟁에서 유치권을 따내기 위해 공격적인 유치운동을 펼쳤다. 마침내 1960년 5월, IOC는 개최지를 투표로 선정하였다.

일본에 있어 1964년 10월 제18회 올림픽피아드를 유치한 것은 전후 재건 기간의 종료와 저평가된 일본의 높은 경제 성장을 알리는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964년까지 5년에 걸친 올림픽 준비는 문자 그대로 도쿄의 얼굴을 변신시켰다. 도시와 근교의 도로가 확장되었다. 거대한 올림픽촌이 요요기에 세워졌고 NHK는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 근처에 새로운 방송센터를 건설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엄청난 비용이 이 준비를 위해 사용되었다.

하지만, 올림픽과 관련된 최고의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알려진 신칸센 초고속열차였을 것이다. 이 열차는 올림픽 개시 9일 전에 도쿄와 오사카 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도쿄 올림픽에는 93개국에서 5,152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온 16개국 대표단들도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하였다. 10월 10일에 열린 개막식은 84.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개최국으로서 일본은 294명의 남자선수와 61명의 여자선수로 구성된 역대 최대규모의 팀을 조직하였다. 일본 선수들은 권투와 체조, 레슬링, 육상, 역도, 사격 등에서 메달을 따내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일 중 하나는 일본팀이 여자 배구에서 소련을 맞아 역투하여 금메달을 따낸 경기였다.

또한,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 토종 스포츠인

요시다 사오리

요시다 사오리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부터 시작하여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땀다. 그녀는 2012년 국민영웅상을 수상했다.
(사진 제공: 키시모토)



유도가 올림픽 경기 남자 종목으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일본 선수들은 네덜란드가 우승한 무제한급을 제외한 모든 체중에서 금메달을 따내었다.

도쿄 올림픽에서는 47개의 세계 신기록과 111개의 올림픽 신기록이 달성되었다. 금메달 1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8개는 일본 선수단이 거둔 역대 최고의 성적이었으며 일본은 미국과 소련에 이어 메달 합계 3위에 올랐다.

하계 올림픽에서의 일본 선수들의 활약

남자 유도에서는 뮌헨올림픽(1972년) 이후에도, 일본 선수가 활약하여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60 kg급의 노무라 다다히로는 아테네 올림픽(2004년)에서 3 연패를 달성했다. 최중량급인 무제한급에서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스즈키 게이지가, 베이징 올림픽(2008년)에서는 이시이 사토시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일본 선수가 2 연패를 거두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1992년)부터 정식 종목이 된 여자 48 kg급에서도 다니 료코가 아테네 올림픽에서 2 연패를 달성했으며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5 대회 연속으로 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체조 단체종합에서는 몬트리올 올림픽(1976년)까지 5 연패를 거두었다. 그 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베이징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체조 남자 개인 종합 종목에서는 일본 체조선수 우치무라 코헤이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다. 그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2회 연속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

수영 경기에서는 뮌헨 올림픽 이후, 7명의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였다. 이와사키 교코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자 200 m평영에서 14살의 나이로 금메달을 획득하여 수영 경기 사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기타지마 고스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자 100 m평형과 200 m평형에서 2 연패를 달성했다.

육상 경기 가운데 일본인 메달리스트가 많이 탄생하는 종목은 마라톤이다. 여자 마라톤

에서는 시드니 올림픽에서 다카하시 나오코가, 아테네 올림픽에서 노구치 미즈키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육상경기에서는 무로후시 코지가 아테네 올림픽 남자 해머던지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노부하라 아사하라와 그의 팀은 베이징 올림픽 남자 400미터 계주에서 동메달을 땀다.

구기 종목에서는 뮌헨 올림픽에서 남자 배구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여자 배구가,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소프트볼(소프트볼은 여자만)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멕시코 올림픽(1968년)에서는 남자 축구가 동메달을 획득했고 가마모토 구니시게가 득점왕으로 빛났다.

그밖에 남자 레슬링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여 헬싱키 올림픽 이래로 16 대회 연속 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 또 아테네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된 여자 레슬링에서는 55 kg급의 요시다 사오리와 63 kg급의 이초 카오리가 아테네, 베이징, 런던 올림픽에서 연속 금메달을 땀다. 일본의 여자 레슬러는 지금까지 모든 체급에서 메달을 획득하였다. 또한 여자축구 팀 나데시코 재팬은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땀다.

동계 올림픽

1928년 스위스 세인트 모리츠에서 열린 제2회 동계 올림픽에는 일본 최초의 동계 올림픽 선수단이 출전했다. 1936년 독일 가미스키파텐카첸 동계 올림픽 때는 처음으로 여자 선수를 동반한 선수단이 구성되었다. 이후 일본은 1948년 생모리츠 동계 올림픽을 제외한 모든 동계 올림픽에 참가했다. 1956년에 이가야 치하루는 코르티나 디엠페조에서 열린 스키 활강 경기에서 2위에 입상했는데 이것은 동계 올림픽 역사상 일본이 딴 첫 번째 메달이 되었다.



1972년 2월에 홋카이도 삿포로시는 제11회 동계 올림픽 개최권을 입찰받았다. 이 행사는 35개국에서 1,006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삿포로 올림픽은 일본이 동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때인데 가사야 유키오가 70미터 스키 점프에서 1위에 입상했다.

나가노 올림픽

나가노 올림픽은 1998년 2월 7일부터 22일에 걸쳐 치러졌다. 개최지인 나가노는 현청 소재지일 뿐 아니라 시가 하이랜드, 하쿠바, 가루이자와, 노자와 온천과 같은 유명한 겨울 스포츠 휴양지를 보유하고 있다.

동계 올림픽과 동시에 나가노는 107회 IOC 총회를 개최했다.

나가노 올림픽은 20세기에 열린 마지막 동계 올림픽이었다. 72개국에서 2,176명의 선수가 68경기에 참가하였다. 슬라럼 및 하프파이프 스노보드 경기와 여자 아이스하키 (캐나다, 미국, 핀란드, 중국, 스웨덴, 일본), 컬링이 새롭게 공식 종목으로 추가되었다.

나가노 올림픽의 명시된 목적 중 하나는 “자연과 아름다운 자원들과의 공존”이었다. 이 목표에 걸맞게 새로운 토지 개발을 가능한 한 줄였으며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다양한 대체방법이 사용되었다.

동계 올림픽 후 곧바로 열린 제7회 장애인 동계 올림픽에서는 32개국에서 온 580명의 선수가 34경기에 참여하였다.

동계 올림픽에서의 일본 선수의 활약

스키점프 경기에서는 나가노 올림픽의 라지힐급에서 후나키 가즈요시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같은 라지힐급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일본 선수들이 활약하였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일본 선수가 활약하는 종목이 남자 500 m이다. 사라예보 올림픽 (1984년) 이후 9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나가노 올림픽에서는 시미즈 히로야스가 금메달을, 밴쿠버 올림픽 (2010년)에서는 나가시마 게이이치로가 은메달을, 가토 조지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알베르빌 올림픽 (1992년)에서 이토 미도리가 은메달을, 토리노 올림픽 (2006년)에서 아라카와 시즈카가 금메달을,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아사다 마오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자는 밴쿠버 올림픽에서 다카하시 다이스케가 동메달을, 소치 올림픽 (2014년)에서 하뉴 유히루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 외, 노르딕 복합 단체에서는 알베르빌 올림픽과 릴레함메르 올림픽 (1994년)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개인전에서도 릴레함메르 올림픽에서 고노 다카노리가 은메달을, 소치 올림픽 (2014년)에서 와타베 아키토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자유형 모글에서는 사토야 다에가 나가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2002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리오데자네이로 올림픽

2016년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에서 일본은 41개의 메달(금메달 12개, 은메달 8개 및 동메달 21개)을 땀으며 특히 팀 종목에서 뛰어난 결과를 얻었다. 일본은 남자 체조 단체



런던올림픽 체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우치무라 고헤이 선수

종목과 여자 배드민턴 복식에서 금메달, 남자 탁구 단체 종목에서 은메달, 여자 탁구 단체와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종목에서 동메달을 땀다. 남자 4인조 100미터 스프린트 계주 종목에서 일본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최초로 메달을 땀으며 일본의 역대 팀 중에서 가장 빠른 팀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 밖의 종목에서 니시코리 케이가 남자 테니스 개인 종목에서 동메달을 땀으며, 이는 96년 만에 일본의 최초 메달이다. 남자 체조 개인 종합 종목에서 우치무라 코헤이는 금메달을 딴 네 번째 일본 선수 및 2연패를 달성한 두 번째 일본 선수가 되었다.

폐막식에서 올림픽기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주최하는 일본에게 넘겨졌다. 앞으로 개최될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 선수들은 많은 종목에서 다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남자 4인조 100m 스프린트 계주에서 은메달

남자 4인조 100m 스프린트 계주 팀(이즈카 쇼타, 기류 요시히데, 야마가타 료타 및 케임브리지 아스카)이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땀다.

(사진 제공: 키시모토)